

SDI 서울지역 4/4분기 체감경기조사 및 경제 전망

박희석 연구위원 · hspark@sdi.re.kr

오동훈 연구원 · likedeepblue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서울경제분석팀

I.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

II. SDI 4/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조사

III. 2012년 서울경제 전망

* 서울시정개발연구원(www.sdi.re.kr)에서 발간하는 「SDI 정책리포트: SDI 2012년 서울경제전망(104호, 12월 12일)」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정책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I.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

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세계경제 저성장기조 유지

-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 2011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
 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은 ‘OECD 경제전망(2011년 11월)’ 을 통해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1년보다 0.4%p 낮아진 3.4% 제시
- 그리스 재정건전성 문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2년이 고비가 될 전망
 - 최근 유로존의 재정 통합논의 등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2년에는 진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
 - 그러나 독일의 국채발행이 실패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유럽 재정 위기의 불안요인은 상존

대 외 여 건	불안정성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계경제 저성장기조 유지 - 유럽의 재정건전성 문제 지속 -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-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국 내 여 건	국내경제 불안요인 상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계부채 증가, 연체율 상승 - 소비심리 둔화, 내수부진 - 수출둔화 전망
서 울 경 제	산업생산 침체, 소비·고용 보합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생산 감소세 지속 -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- 취업자수 미미한 증가세 유지

[그림 1] 국·내외 경제 여건 요약

- 미국 경제 역시 고용문제, 주택가격 불안, 민간투자 심리 위축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2012년 더블딥 가능성 제기
 - 2011년 미국의 제조업·비제조업 생산지수 하락, 10월 신축 주택가격이 연중 최저치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 악화
 - 고용지표 또한 부진하여 2012년에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

2012년 국내경제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둔화, 내수부진 전망

-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 2011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
 - 국내·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평균 3.9%로 2011년 보다 0.1%p 높아질 것으로 전망
- 최근 가계대출 증가,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확대로 2012년 큰 폭의 내수 증가는 어려울 전망
 -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고용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여력이 확대 가능성 존재
 -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내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
-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우리나라 수출둔화 전망
 - 2011년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이끌던 수출 증가는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안정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될 전망
 - 하지만 2012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수요 감소로 수출둔화가 불가피 한 상황

최근 서울경제는 산업생산 침체, 소비와 고용은 보험세 유지

-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
 - 최근 소비재 생산의 하락세는 안정되었지만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감소세 유지
 -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-17.7%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세가 완화되어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-5.8% 기록

-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최근 5개월 평균 2%대 유지
 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3.2%로 낮은 성장률 유지
 -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1년 상반기 1년간 평균 6.7%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

-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은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7.7% 증가하여 상반기에 이어 증가세 유지
 - 2011년 3/4분기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16.6% 증가하여 상반기 평균 13.8% 보다 증가폭 확대

- 서울의 고용사정은 미미한 증가세 유지
 - 2011년 10월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5개월 평균 증가율 1.3% 수준인 1.0% 증가
 - 전국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2.1%로 서울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
 - 2011년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.2% 증가
 -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1년 3/4분기 전년동기대비 2.9% 기록하여 2005년 1/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

II. SDI 4/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조사

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

-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¹⁾는 4분기 연속 기준치(100) 하회
 - 서울시 가계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1년 3/4분기 83.4에서 4/4분기 86.0으로 2.6p 소폭 상승
 - 서울의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와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각각 57.1, 92.2로 기준치(100)를 하회하였으나 전분기대비 상승 반전
 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85.0으로 보험세를 기록하였으나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100.5로 기준치(100)를 상회
 -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와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각각 91.3, 98.1로 2011년 3/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
- 최근 산업생산, 소비, 고용 등의 경기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시사



[그림 2]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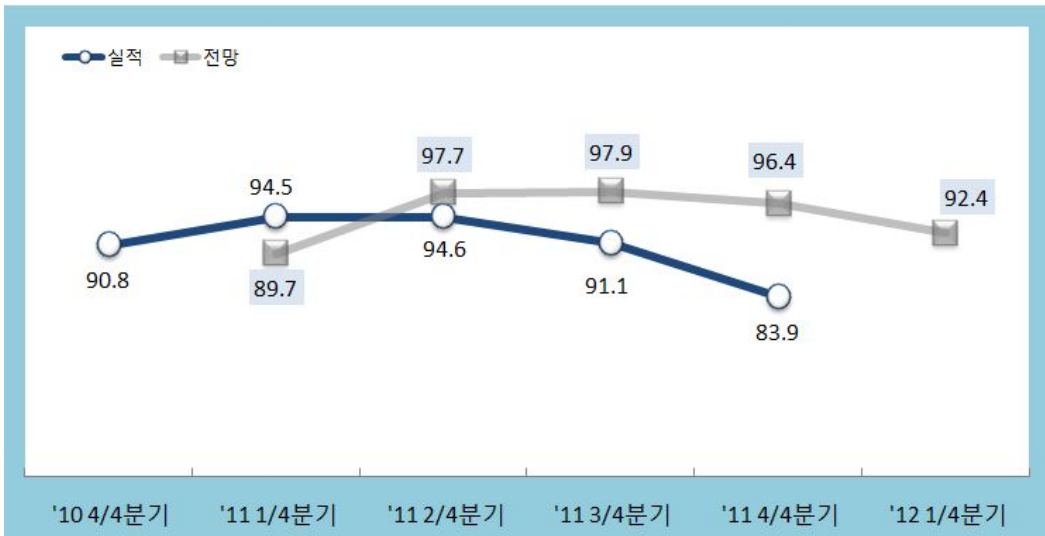
1)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, 경기, 내구재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

서울기업의 체감경기 및 향후 경기전망 모두 하락

- 2011년 4/4분기 서울의 「업황실적지수」는 전분기대비 7.2p 하락한 83.9, 「업황전망지수」는 전분기대비 4.0p 하락한 92.4를 기록
 - 「업황실적지수」와 「업황전망지수」 모두 기준치(100)를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기업의 체감경기과 경기전망이 모두 비관적임을 시사

- 서울소재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조사
 - 2011년 3/4분기 기준치(100)를 상회하던 생산(88.2), 설비가동률(88.7), 설비투자규모(86.5)가 모두 하락하여 기준치를 하회
 - 특히 2011년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 수출 실적(87.3)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

-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, 수출둔화,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



[그림 3] 서울의 업황지수

Ⅲ. 2012년 서울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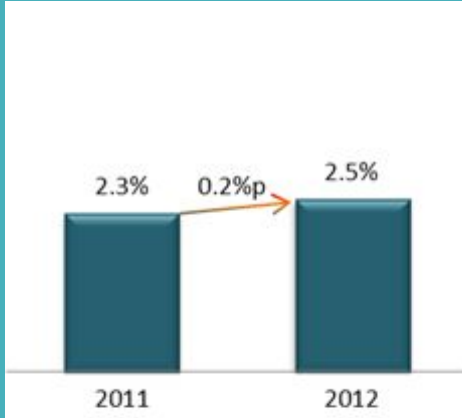
2012년 서울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

- 서울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비슷한 2%대 전망
 - 서울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.5%로 전년대비 0.2%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년 연속 2%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서울의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노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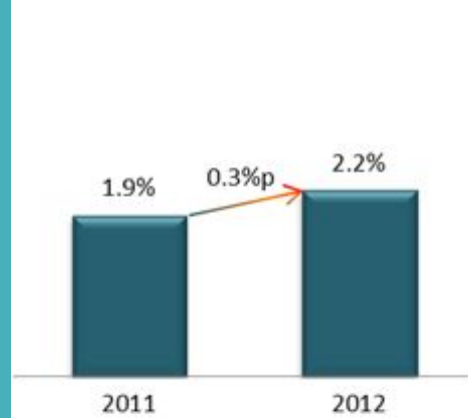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2012년 민간소비지출은 2.2% 증가 전망
 - 서울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 - 4/4분기 서울의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가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 확대는 더디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

- 서울의 2012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3.3% 전망
 - 2012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11년 3.8%보다 0.5%p 낮은 3.3% 전망
 -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국과 비슷한 수준인 3%대 초반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
 - 하지만 공공서비스요금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, 개인서비스 부문 역시 가격인상 요인이 많아 물가상승 압력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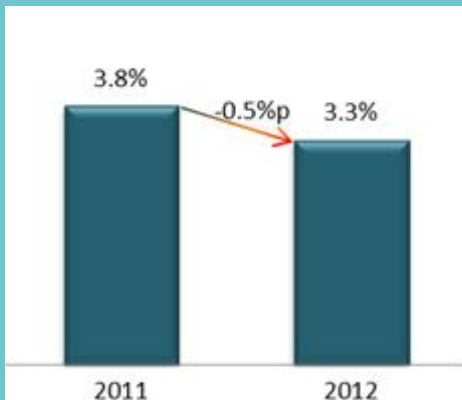
- 2012년 서울의 실업률은 4.6%로 2011년과 보합세
 - 최근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2012년 서울의 실업률은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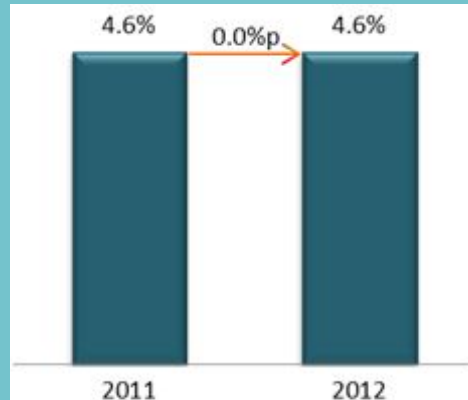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2012년 서울 경제성장률 전망



[그림 5] 2012년 서울 소비전망



[그림 6] 2012년 서울 물가상승률 전망



[그림 7] 2012년 서울 실업률 전망